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별공간 실내마감 계획요소의 선호경향*

홍 이 경*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박사 후 연구원)

오 해 경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교수)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우리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가족화, 노인봉양에 대한 의식,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해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전용주택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주택 유형으로서 노인공동생활주택을 제안하였으며 노인공동생활주택 실내디자인을 위한 개별공간 실내마감 계획요소에 대한 선호경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노인층(50-59세) 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사회조사 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개별공간의 실내분위기, 내부마감의 제공방식, 마감재료, 고급화를 원하는 개별공간, 색채에 대한 선호경향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각 내용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값, 교차분석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공간의 실내분위기로는 한국 고전적인 분위기에 대한 선호가 높게 조사되어 옛 것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개별공간 내부마감의 제공방식에 대해서는 실내마감이 모두 제공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게 조사되어 전반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마감재를 선택하는 방식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별공간별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바닥재의 경우 침실은 장판, 거실과 부엌은 원목마루, 욕실은 타일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벽재의 경우 침실, 거실, 부엌은 벽지, 욕실은 타일에 대한 선호가 높게 조사되었다.

넷째, 고급화를 원하는 개별공간으로 거실에 대한 선호경향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특히 고급형으로의 개발시 거실을 고급스런 공간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개별공간별 색채에 대해 선호색상은 Y, YR계열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BG, P계열에 대한 선호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공간별로는 침실과 거실에서의 선호색상이, 부엌과 욕실에서의 선호색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선호색조에 대해서는 매우연한(very pale)톤, 연한톤(pale)톤, 중성(neutral)톤에 대한 선호가 높게 조사되었고, 개별공간별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된 예비노인층의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별공간의 실내마감 계획요소에 대한 선호를 근거로 하여 한국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내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두뇌한국 BK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